

영암군, '행정-농협 상생협치 모델' 추진 간담회

관내 9개 농·축협 조합장과 농업분야 발전방안 논의 "지속적인 실무협의회·농협장 소통 통해 단계적 해결"

영암군은 3일 농협 영암군지부 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생명 일번지'로의 도약을 위한 '행정-농협 상생협치 모델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조합장 선거를 통해 선출된 관내 9개 농·축협 조합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시기로, 우수회 영암군수와 농협중앙회 영암군지부장을 비롯한 각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의 농업분야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열린 행정-농협 간담에서는 ▲농어

민 공익수당 지급 ▲농촌인력 증가센터 운영 (농촌인력 수급대책) ▲23년 지역사랑 상품권 정부지침 발표에 따른 대책 등 당면업무 사항을 중점 논의하였으며, 상호 상생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농업분야 정책을 공유했다.

군 관계자는 "농촌인력 부족 및 농자재 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협력하자는 데 다시 한번 뜻을 모으는 자리였다." 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산적인 과제들이 많다. 지속적인 실무협의회와 지역 농협조합과의 소통을 통해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무안군, 꿀벌 농가 피해 예방 위해 두 팔 걷어붙여

무안군은 이상기후와 꿀벌 바이러스 등 꿀벌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를 위해 지자체 사업을 편성해 긴급 입식비 등 기자재, 방역약품 지원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애초 전남도가 꿀벌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이었는데 무안군도 양봉농가 지원을 위해 군 자체 사업으로 2억 9,700만 원을 추가 편성해, 총사업비 3억 7천만 원 중 50%를 입식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꿀벌 피해 농가 희생 지원사업으로 기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도 자체 사업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무안군은 양봉농가의 사육 기반 안정화와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말벌퇴치 장비를 비롯하여 남충봉아부패병 예방약, 응애류 예방약, 면역강제제 등 방역약품 5종에 1억 2천만 원을 지원한다. 무안=이기성기자



목포시, 2023년 유달산 봄축제 이번 주말 개최

4년만의 전면 대면 축제...오는 8~9일 유달산 일원 일주도로 전면통제

목포시가 4년만의 전면 대면 축제로 돌아온 2023 목포 유달산 봄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달산 봄축제는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유달산과 원도산 일원에서 '유달산의 봄, 이순신의 재탄생!'이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대표 프로그램은 봄꽃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와 수군퍼레이드이다. 토크콘서트 첫번째날은

가수 김범수와 나비가 참여하고 둘째날은 가수 테이와 김나영이 함께한다.

또한 유달산 봄 축제의 꽃인 수군퍼레이드는 목포의 수군 역사에 따라 웅장하게 연출된다. 각계각층이 참여해 시민이 화합하는 메시지를 담아낼 뿐 아니라 올해 가을 열리는 제 104회 전국체육대회 마스코트가 행렬에 참여해 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게 된다.

이처럼 시는 이순신과 수군문화 콘텐츠를 융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목포시의 수군문화와의 인연은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 왕건 시대 압해도의 능창장군은 수군에 통달해 별명이 수달이었다 한다. 이 장군은 왕건과 융합작전을 펼쳤고, 왕건이 나주를 비롯한 호남권을 장악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조선 세종때 설치된 목포진은 수군의 역사성을 상징한다. 목포진에는 만호(萬戶)가 배치되었다고 해 만호진이라 부르기도 했다. 여기서 기원이 되어 현재 만호동이 되었다.

또한, 이순신장군은 명량대첩 승리 후 고향도

에서 106일간 머무르며 판옥선을 건조하고, 군량미를 비축해 수군 재건의 토대를 마련했다.

유달산에 있는 노적봉은 해발 60m의 바위산에 불과하지만, 왜적을 물리친 호국훈이 담겨있다. 이순신 장군은 노적봉 바위를 벗겼으며, 돌이 군량미가 많아 보이게 하는 위장전술로 왜군이 스스로 물러나게 했다고 한다.

목포는 이점에 착안해 유달산 봄축제에서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한편 수군문화를 관광자원화 하고, 역사적 사실을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고자 노적봉 주차장에 수군존을 따로 설치하여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영광군, 가뭄 장기화 대비 비상용수 개발에 총력

영광군은 가뭄심각 지역을 찾아가 가뭄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살피고 주민들의 가뭄피해 확산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를 강조하였다.

특히 이날 현장 방문은 배수 상수원 대신제와 염산 상수원 복용제 비상급수 상수원 및 지하관정 확인에 나서는 등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그동안 영광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가뭄대책 사업비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억원을 우선 확보하였고, 이번엔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상습적으로 가뭄이 발생하는 염산(복용제)지역을 우선적으로 비상관정 개발과 용수 공급 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가뭄 취약지역 비상관정 자체 점검으로 배수 대신리 방사형 관정을 보수하여 일 평균 1,000㎡ 용수를 대신제 수원지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배수지역 가뭄 장기화를 대비하기 위해 비상급수 시설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가뭄 대비 단기대책으로 긴급 누수 복구반을 구성하여 상수도 누수 방지를 위해 집중관리 강화하고 기존 비상관정 가동상태 점검과 주기적인 관정별 수질 검사하는 등 상수원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영광=서희권기자

함평군, 수확기 유해야생 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함평군이 2023년도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본격 운영한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된다.

앞서 군은 모집공고를 통해 전문 수렵인 16명을 선발했으며, 안전한 포획활동을 위한 포획업무 처리 수칙 및 안전교육을 완료했다.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이 읍·면사무소에 신고 시 현장에 출동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 및 폐사체 예방 활동도 전개한다. 군은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 전문 처리업체 위탁을 통해 폐사체 냉동고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함평=김광춘기자

신안군, '폐교 리사이클링' 매화도 센터 개칭식

압해초 매화분교 리모델링 "열린 행정공간 될 수 있도록 만들 것"



신안군은 지난 3일 폐교인 압해초 매화분교를 리모델링하여 작은섬 1004선 매화도 주민을 위한 다목적 용도의 매화도 센터 개칭식을 가졌다.

압해초 매화분교(폐교)는 장군봉 줄기에 1953년 5월 1일 개교하여 2010년 10월 5일 폐교하기까지 57년간 매화도의 영혼과 정신을 담아 1,354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뜻깊은 공간이기도 하다.

이날 행사에는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해 개칭식을 축하했다.

매화도 센터는 다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사업비 495백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162.57㎡, 지상1층 규모로 리모델링 했으며, 2022년 10월에 착공해 12월에 완공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와 보건의료 및 문화시설 그리고 복합커뮤니티(Community) 개념의 열린 행정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